

광주 양궁 역시 전국 최강... 무더기 금 명중 '종합우승'

광주여대 안산·오예진·김민서 맹활약 단체전 우승... 오예진 4관왕
조선대 이진용·남구청 이승윤도 금메달... 금 8·은 7·동 4개 수확



제 103회 전국체전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여대 양궁팀. 왼쪽부터 오예진·안산·김민서·최예진. <광주시양궁협회>



왼쪽부터 양궁 대학부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오예진(광주여대), 이진용(조선대). <연합뉴스>



광주양궁이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목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광주양궁은 전국 체육대회 양궁 종목 종합우승을 5회로 늘렸고, 준우승 3회, 3위 2회 등 명성을 이었다.

광주는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남구청이 금1, 은2, 광주시청이 금1, 은1, 동1을 수확했다. 광주여대가 금4, 은3, 동2, 조선대가 금2, 광주체고(여고부) 은1, 동1개를 따냈다.

광주 양궁은 12일 울산문수국제체육관에서 열린 종별 개인·단체 결승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쓸어들었다.

안산은 이날 양궁 여자 대학부 결승에서 오예진(18), 김민서(22·이상 광주여대)와 팀을 이뤄 한국체대를 6-2로 눌렀다.

전날 개인전 4강에서 이윤지(21·한국체대)에게 패하고, 3·4위전에서 이가영(22·계명대)을 꺾어 동메달을 딴 안산은 이번 대회 메달을 딸 수 있는 마지막 경기에서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안산이 대학에 입학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체전이 취소됐고, 도쿄올림픽을 통해 '전

국구 스타'로 도약한 지난해에는 고등부 대회로 축소해 열렸다.

안산은 개인전 예선을 겸한 30m와 60m에서 모두 은메달을 땀.

올해 광주여대에 동지를 둔 오예진의 활약이 돋보였었다.

오예진은 이날 개인전 결승에서 이윤지(한체대)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6-5로 승리하며 여자대학부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다.

이진용(조선대)과 사·도대학전인 혼성단체전 광주대표로 출전한 오예진은 대구선발(서민기·이가영)을 5-1로 제압, 금메달을 추가했다.

거리별 경기 50m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던 오예진은 대회 4관왕에 올랐다.

남자일반부에서는 이승윤(남구청)이 '금빛 과녁'을 꿰뚫었다.

이승윤은 개인전 결승에서 이호빈(전북체육회)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승윤은 기보배(광주시청)와 팀을 이룬 혼성단체전 결승에서는 제주선발(오진혁·정다소미)에게 3-5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고등부 단체전에서는 이송현·조수혜·이다영·이승현이 출전한 광주체고가 충북체고에 패해 은메달을 보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복싱·육상 등 무더기 메달 수확 '순항'

동구청 소속 복싱 한영훈 금
순천시청 이은경 양궁 2관왕

광주·전남선수단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광주는 대회 6일째인 12일 양궁에서 메달이 쏟아졌다.

오예진(광주여대)이 여자대학부 개인·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남자일반부 개인전에서는 이승윤(남구청)이 금메달을 추가했다.

복싱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 남자일반부 라이트웰터급에 출전한 한영훈(국군체육부대·동구청 소속)은 결승에서 강현민(제주)을 3-2로 누르고 금메달을 땀.

한영훈은 지난 2년간 각종 대회와 훈련에 매진

해 왔으며 국군체육부대에 입단한 후에도 경기력을 유지하며 이번 체전에 출전했다.

동신고 소프트테니스팀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동신고는 남고부 단체전 홍성고(충남)와의 결승에서 종합 2-3으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에서는 김국영·여호수아·이준·모일환(광주시청)이 남자 1,600m 계주에서 3분09초55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농구 여자일반부에 출전한 광주대는 실업팀 대구시청과 준결승에서 76-83으로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육상 세단뛰기 김덕현(광주시청)도 15m4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당구 남일부 캐롬3쿠션의 김현석(광주당구연맹)도 준결승에서 김준태(경북)에 패해 동메달을 보냈다.

전남은 육상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수확했다. 여자일반부 높이뛰기에 출전한 김은정(여수시

청)이 1m7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신고했고, 남부 고등부 △4×400m 릴레이에서는 동반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여자고등부 4×400m 릴레이에 출전한 전남체고는 조운서·이은빈·최지선·양예빈이 팀을 이뤄 3분55초23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남부고등부에서는 유지웅·조상현·배건울·박효선·김기현·나상우가 출전한 전남선발이 3분16초2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세단뛰기 김장우도 16m57을 날아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궁에서는 2관왕이 탄생했다. 이은경(순천시청)은 여자일반부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박서진·손예령·최미선과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금빛 과녁을 꿰뚫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시청 여자하키 14년 만에 값진 금

이서후 결승골 잘 지키며 아산시청 1-0 제압 우승



14년 만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목포시청 여자하키팀.

목포시청 여자 하키팀이 14년만에 전국체전 정상에 올랐다.

목포시청은 지난 11일 강릉도 동해썬라이즈 국제하키팀경기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아산시청을 1-0으로 제압,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서후의 2리터 득점을 끝까지 잘 지켜내 1위에 올랐다.

목포시청은 지난 2008년 목포 전국체전 이후 14년만에 정상의 기쁨을 누렸다.

전국 대회 우승권 전력으로 꼽히는 목포시청은 그동안 전국 체전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목포시청은 조은지, 김현지, 이서후 등 국가대표 3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2회 전국체전 3위, 100회 전국체전 3위에 올랐으나 결승전까지 진출하지 못했다.

목포시청 배상호 감독은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면서도 금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했는데 값진 결실을 얻었다"며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전 경기를 치렀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하키팀을 뒷바라지 해준 박홍을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목포시청 하키팀은 10월 코리아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14일 올시즌 리그 1위를 차지한 KT와 강원도에서 격돌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스쿼시팀 금 1·동 1 '종합 준우승'



광주 스쿼시팀이 전국체전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스쿼시팀은 지난 7-11일까지 울산 문수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 스쿼시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등을 획득했다. 종합득점 1458점을 기록한 광주는 경남(1475점)에 이어 전국체전 스쿼시 종목 종합 2위에 올랐다.

광주 스쿼시는 김가혜(광주시체육회·41)·배찬미(33)·송동주(23)가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인천을 2-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현승(동일미래과학고 3년)·박지훈(2년)·이지항(1년)이 나선 남자고등부 단체전은 준결승에서 경기 0-2로 패해 동메달을 땀.

김은우(장덕고 2년)·조은우(첨단고 1년)·권하림(동일미래과학고 1년)이 출전한 여자 고등부와 오민재(광주시체육회·30)·오성학(26)·고용조(27)가 참가한 남자 일반부는 단체전 8강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정직한 후보2
2관	티켓 투 파라다이스,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갈학교
3관	대우가, 오만: 천사의 탄생
4관	오만: 천사의 탄생
5관	인생은 아름다워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9관	공조2: 인터내셔널, 정직한 후보2
7관 씨네캐플	티켓 투 파라다이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8관 씨네캐플	스마일,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트리오 오원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일시: 2022. 10. 1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몰토 콰르텟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④

일시: 2022. 11. 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